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7호 【루계 제23299호】 주체99(2010)년 12월 13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4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4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제287군부대, 제604군부대, 제572군부대, 제529군부대, 제534군부대, 제324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최룡해동지,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박정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옥동지, 김원홍동지, 김명국동지, 김영철동지, 윤정린동지와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화선전호가에서 자나깨나 그리던 어버이장군님께로 달려온 중대군인들은 설화와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대화시 《장군님과 우리들꽃중대》, 녀성2중창 《장군님 발자국소리》, 합창이야기 《우리모두 만능해병》, 남성중창 《총과 병사》, 시와 이야기 《백두의 훈련열풍으로》, 녀성독창 《피바다가》, 탄피피리합주 《전호속의 나의 노래》, 설화와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어은금병창 《매혹과 흠모》, 대화시 《이야기하라 잣나무여》, 통소와 피리합주 《혁명을 위하여》, 극중창 《우리가 앞장에서》, 노래와 이야기 《중대자랑 옹헤야》, 합창 《승리의 열병식》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과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누려가는 자기들의 행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모두가 성새, 방패가 되여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며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뜻도 숨결도 운명도 같이하는 우리 군대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는 격동적인 공연을 보면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군인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당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생동하게 반영되고 위대한 선군시대의 독특한 정서와 랑만이 흘러넘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군인들이 우리 당의 사상을 충분히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군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견결한 투사들로 튼튼히 준비되였을뿐아니라 높은 도덕과 문화적소양을 갖춘 선군시대 군인문화의 창조자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이런 정예화된 무장력이 조국방선을 금성철벽으로 지키고있기에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성황리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34차 군무자예술축전은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드높은 열의를 안고 축전에 참가하여 우리 군대의 정신력과 전투력을 힘있게 떨친 전체 축전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창조한 군인문화에는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전투적랑만과 풍만한 정서가 넘쳐나고있으며 그것은 선군시대 사회주의생활문화의 전형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적군인문화를 온 사회에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여온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사는 예술의 위력을 뚜렷이 증시한 음악정치의 위대한 승리이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대중적인 예술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군인들은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며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조국방선을 철옹성같이 사수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총돌격전에 더욱 박차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회령시 근로자들과 회령대성담배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회령시 근로자들과 회령대성담배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2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김봉식 함경북도당위원회 비서,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회령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한 회령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시내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오산덕에 높이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여갈 일념을 안고 사적지관리와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는 회령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령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회령고려약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약품생산에 힘을 넣을데 대해 가르쳐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회령관에도 들리시여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건설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음식점거리를 돌아보시면서 봉사활동에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회령시를 돌아보시면서 시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도록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는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고무적기치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회령식료가공공장을 비롯한 식료가공기지들에서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치며 인민들에게 영양가높은 부식물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령관, 음식점거리를 비롯한 사회급양봉사망들에서 료리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여 인민들에게 봉사하며 회령고려약공장에서는 질좋은 약품들을 대량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시건설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며 도시록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조성사업을 잘하여 회령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회령대성담배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공장로동계급이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한길로 전진할수 있게 하는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공정을 더욱 현대화, 과학화하고 잎담배보장을 적극 앞세워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생산자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담배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문화휴식조건을 잘 마련해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에서

1호발전소 조기조업

【백암 1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에서 1호발전소가 조기조업을 하였다.

발전소가 조기조업됨으로써 공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완공의 날을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생산을 늘이자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열의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일군들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골재선별계통과 콘베아의 능력을 확장하고 혼합기와 기중기들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수백㎥의 혼합물을 타입함으로써 언제 공사속도를 종전의 1.6배이상으로 올리였다.

물길굴을 맡은 평양시,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물길굴확장과 피복공사에서 매일계획을 최고 250%까지 수행하여 맡은 과제를 제기일에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황해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도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함마와 정대로 천연암반을 까내면서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조압수조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서 자재보장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량강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공사에 지장이 없게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물동을 원만히 실어날랐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련두평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1호발전기조립을 끝내였으며 전자공업성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 연구사들도 발전기종합조종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련관단위 공장, 기업소로동계급과 각지 청년들은 발전설비들과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고 건설장을 찾아 일도 함께 하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은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1호발전소조기조업을 보장한 기세로 더욱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

함흥시내 여러 단위에서 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백운산종합식료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함흥수리동력대학에서 11일과 12일에 진행되였다.

백운산종합식료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각종 특산식료품들의 생산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식료품들을 많이 만들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기술관리, 설비관리에 힘을 넣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공장을 만부하로 돌리며 식료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종 제품들을 보아주시고 영예군인들과 가족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영예군인들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도 총쥔 병사의 자세로 랑만과 희열에 넘쳐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며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흥남제약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 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 공장건설을 앞당겨 끝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개건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공장을 제약공장의 본보기공장, 멋쟁이공장으로 꾸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건물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는데 맞게 력량을 집중하여 설비들을 들여놓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며 약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함흥수리동력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 기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치하하시고 오랜 기간 교육과학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한 교육자들과 연구사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수리동력분야의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과학기술교육을 개선강화하고 학생들을 정보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킴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궐기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 리진명 찍음

정 론

창성땅에 불길이 타올랐다

격동적인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각에도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계속되고있다.

벽두부터 대고조에 박차를 가하시며 발전소건설장과 수많은 공장들, 농업전선에 무수한 발자취를 새겨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얼마전 북방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수천리 강행군길을 걸으신 소식은 우리 인민들을 뜨거운 감격에 휩싸이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총진군의 열풍이 강산에 굽이치고있는 속에 우리는 창성에서 타올라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하나의 거세찬 불길에 대하여 소리높이 말하게 된다.

창성!

우리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황금산》의 새 력사와 더불어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는 이 력사의 땅이 다시금 시대를 울리고있다.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성땅에 지펴주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

근 반세기전 우리 수령님께서 창성에 올려주신 《황금산》산울림이 온 강산을 뒤흔들었던것처럼 새 세기에 또다시 타오른 창성의 불길은 조국의 방방곡곡에 새로운 비약의 분화구를 터쳐주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지는 강성대국지상락원을 펼치게 될것이다.

⁘ ⁘

산, 산…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산이 많은 창성,

누구에게나 《황금산》이라는 대명사로 친숙해진 저 아아한 산발과 더불어 창성의 창조와 변혁의 력사가 새겨지고있는것이다.

시대의 불길이 타오른 이 땅에 대한 흥분은 걸음을 옮길수록 우리의 심금을 틀어잡는다.

머루나 다래야 너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딸기야 너도 좀 보자라는 흥겨운 노래구절이 절로 떠오르고 바구니가 철철 넘치게 열매를 따들이던 처녀들의 땀배인 얼굴이 저 산발에 그대로 어려온다.

그렇게 거두어들인 갖가지 원료로 군의 식료공장에서는 단물이며 장절임과 같은 가공품들을 척척 만들어낸다.

산에 흔한 도토리가 이름난 술이 되고 맛좋은 단졸임이 되여 상점들을 흥성이게 하니 얼마나 좋은가.

잠자리를 덥혀주는 포근한 이불이며 썰매를 타는 저 아이들의 모자도 바로 우리가 생산한 양털로 만든 우리 군의 직물공장제품이라고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도 자랑스럽다.

앞뒤산에 무성한 나무로 가구공장에서는 밥상이며 이불장을 만들고 종이공장에서는 학습장을 생산하여 아이들의 책가방을 듬뿍 채워주는 이 생활에 대한 창성사람들의 애착심은 참으로 강렬하다.

도시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벌방사람들이 시샘할 정도로 쭉 때벗이를 한 멋쟁이모습으로 TV무대에 올라 여기도 저기도 지방공장에루화 많이도 일떠섰소라고 지난해와 또 다르게 변한 창성을 긍지에 넘쳐 노래한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우던 산골이 꽃피는 대지, 흥하는 군이 된 희한한 전변이 시대에 주는 울림은 크다.

우리 당의 지방공업정책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는 여기 창성땅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돌격전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후덥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방공업은 나라의 소비품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습니다. 도와 시, 군들에서는 지방공업의 발전을 지방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여기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강성대국건설의 중대한 목표를 점령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서 지방공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국도처에서 대규모중앙공업이 우렁찬 동음을 울리고있다.

성강과 김철에서 주체철의 불노을이 장쾌하게 펼쳐질 때 단천과 함흥, 대안과 순천지구에서도 전진의 발구름소리 드높으며 곳곳의 경공업기지들에서 첨단돌파의 자랑속에 비약의 북소리 요란하다.

중앙공업의 토대가 날이 갈수록 그쯘해지고 큰 공장, 기업소들이 상승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내달리는데 발맞추어 지방공업에서도 혁신의 기상이 나래쳐야 한다.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병행, 이것이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 벌방과 산골 그 어디에서나 꼭같이 인민의 기쁨이 넘쳐흐르게 하려는 우리 당의 뜻이다.

지방공업은 지방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리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지방마다 자기의 원료와 지리적특성에 맞게 공업을 발전시켜나간다면 나라의 살림살이가 보다 윤택해질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수 있다.

온 나라를 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는 강선의 봉화, 김철의 불길에 이어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준 당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지금 지방공업의 기세는 대단하다.

식료공장이며 종이공장, 일용품생산협동조합과 독공장 등 지방공업공장마다 활성화의 숨결이 약동하는 맹산군이 서부지구의 자랑으로 손꼽히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동해기슭에서는 리원군이 지방공업에서 통장훈을 부르고 당과류며 콩우유, 산나물장절임 등 갖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군내 주민들과 광부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무산식료공장은 또 그대로 크게 소문내고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있는 만포시와 사리원시를 보라.

지방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공장들이 많은것으로 소문난 이런 시들을 돌아보는 멋도 흐뭇하고 자체의 힘으로 강을 다스려 전기부자가 된 기쁨에 석비레탄공장이라는 걸작품을 비롯하여 자랑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닌 정평땅에서 군살림살이이야기를 듣는 기분도 좋다.

시동단추만 누르면 콩이 기계안에서 소독까지 된 먹음직스러운 콩나물로 되여나오는 《콩나물생산의 공업화》가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희령식료가공공장의 현대화수준은 대단하다.

우리 장군님께서 불철주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하나하나 일떠세워주시고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우리의 지방공업공장들이 드디여 용을 쓰며 일어서고있는 오늘 창성에 울려퍼진 지방공업혁명의 포성은 이 앙양된 기세에 또다시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고있다.

우리 당은 2010년의 총진군을 시작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할것을 호소하였으며 이 땅에서는 온 한해 인민생활향상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나라의 모든 경제전선들에서 계속 총공세를 들이대는것과 함께 경공업에 다시한번 련속적인 박차를 가하여 어떻게 하나 우리 당이 내세운 인민생활향상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창성에서 타오른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에는 우리 장군님의 이 웅대한 구상과 확고한 결심이 담겨져있다.

창성의 사변은 강성대국을 향한 우리의 총진군에서 하나의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창성의 산울림이 온 나라에 메아리쳐야 인민들이 행복의 열매를 맛보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다.

창성의 불길!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우에 행복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민족적자존심의 분출이며 로동당의 품속에서 다같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주의번영의 령마루에 하루빨리 오르기 위한 과감한 진격전의 힘찬 포성이다.

어찌하여 여기서 시작되였는가.

이 나라의 하많은 고장가운데서 어이하여 산골중의 산골인 이 땅에 시대의 본보기가 마련되게 되였는가.

《인민》이라는 두 글자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는다.

인민, 바로 인민을 위하여 두메산골 창성과 그리도 깊은 인연을 맺으신 절세의 위인들이 아니시던가.

389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을 불러오는 이 수자를 무심히 대할수 없다.

한평생에 1년도 넘는 그 나날을 창성군 현지지도에 바치신 우리 수령님, 많지도 않은 산골사람들을 위해 5만 4,000여리나 되는 멀고 험한 길을 걸으신 수령님같으신분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전후 창성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 인민들이 먹는 도토리죽을 한술, 두술 뜨시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였으랴.

이렇게 넘기기 힘든 도토리죽을 창성사람들은 매일 먹는다고 하시며 어떻게 하면 산간지대인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겠는가를 두고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살기가 어려워 제땅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려는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찾자고 산에서 언땅에 배를 붙이고 피흘리며 싸웠고 이 땅을 지키자고 포화속을 헤쳤는데 이곳을 버리면 어쩌는가, 여기도 조국의 한부분이 아닌가, 우리 함께 이 땅을 꾸려보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그이,

너무도 궁벽한 창성땅에 한이 맺혀 선뜻 결심을 돌리지 못하는 한 녀인에게 가더라도 이밥이나 새고 가라고 이르신 수령님 깊은 밤 신발 몇켤레를 드시고 다시 농가를 찾으실줄 어이 알았으랴.

수령님, 못 가겠습니다. 수령님과 함께 이 땅을 가꾸겠습니다!

눈물젖은 녀인의 목소리를 안고 소리없이 깊어가던 그밤이 창성의 연혁사의 갈피에 깊이 새겨져있다.

수수천년 잠자던 창성의 골안을 흔들어깨운 《황금산》개척의 첫 메아리는 이렇듯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절세의 위인의 심장에서 울려나왔다.

때로는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의 밥곽도 열어보시고 때로는 발벗은 아이에게 손수 신발도 신겨주시며 우리 수령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신 구상,

인민생활을 추켜세우자면 결정적으로 지방공업을 추켜세워야 한다!

척박하고 궁벽하기 그지없는 창성땅에 행복과 번영의 꽃을 피워주시려 몸소 험준한 산발을 톺으시고 골짜기의 넝쿨속을 헤치시며 창성의 산들에 어떤 지방공업원료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던 어버이수령님,

찬이슬 내리는 이른새벽에도, 비오는 궂은날에도 이처럼 조국땅 곳곳을 찾고 또 찾으시며 사랑의 해발을 따뜻이 뿌려주시던 그 자애로운 모습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인민의 수령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창성땅에 타오른 지방공업혁명의 불길, 그것은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심장이 뿜어올린 사랑의 불길이다.

조건이 가장 불리한 창성이 일떠서면 모든 군들이 일어설수 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고 인민의 행복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높고 험한 령을 넘으시여 또다시 창성을 찾으신 그날은 찬바람부는 11월이였다.

자식의 살림살이가 걱정되여 찾아오신 아버지를 뵈옵는것 같아 창성사람들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이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돌아보시였다.

산과일을 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식료공장을 돌아보시며 창성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놓았다고 과분한 평가도 주시고 더 좋은 설비를 안겨주시려 마음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

머루, 다래라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이런것은 평양에도 없다고 하시는 그이의 말씀속에 자기의것에 대한 애착을 안고 자기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지방공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가 얼마나 뜨겁게 넘쳐흘렀던가.

우리의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땅에서 우리 식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는 확신에 넘치시여 그이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심심산골 창성의 전변을 보면 우리 인민이 올라선 문명과 행복의 높이를 알수 있고 창성의 비약을 보면 조선의 전진속도를 가늠할수 있다.

바로 이런 땅에서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또다시 터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의 깊은 뜻을 새겨안으며 창성사람들은 고마움에 목메여 눈시울 적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쉬임없이 이런 사랑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지금 창성사람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고 현지에까지 찾아오시여 어버이수령님 품들여 마련해주신 지방공업토대가 은을 낼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

종이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이곳 로동계급이 만든 소박한 종이우에 《내 나라》라는 글자도 새겨보시며 이 공장은 종이생산에서 성공하였다고 크나큰 고무를 주시고 식료공장에 오시여서는 자기 지방의 구체적실정을 떠나 남의 본을 따려던 짧은 생각을 일깨워주신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창성의 력사가 흘러왔다.

올해에만도 달마다 창성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니 위대한 그이의 심혈과 로고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얼마전 기초식품생산에서 최첨단을 돌파한 통성식료공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나도록 식사를 미루신채 인민생활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인민의 얼굴에 피여날 행복의 웃음꽃이 어려오시는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창성이야기로 화제를 이어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창성을 일떠세워 나라의 지방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창성이 크게 떠들고 온 나라가 창성을 본받게 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 시각은 원쑤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된 순간이였다.

나라의 정세가 극한점에 다달으고있던 그 준엄한 속에서도 우리의 최고사령부에서는 인민생활문제와 창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꽃펴나고있었음을 인민이여, 잊지 마시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몸소 경공업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어제는 북방의 무산땅에로, 오늘은 회령의 지방공업공장들에로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창성의 불길에 호응하여 지방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자.

당은 오늘 이것을 호소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화답해나서고있다.

경지면적이 불과 몇%밖에 안되고 인구도 적은 척박한 산골군인 창성이 기치를 들었는데 이보다 조건이 좋은 군들이 소리치며 일어나지 못할 리유가 없다.

나라가 강성대국이 되자면 매개 군이 강성대국의 대문안에 들어서야 한다.

자기 군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다. 시, 군마다 자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훌륭하게 꾸려나가는것이 곧 강성대국건설의 주인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이다.

무르익은 열매가 떨어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제손으로 제 살림을 꾸려 자기 군을 일떠세우고 자기 도를 비약시켜 어서빨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는 투쟁정신이 어디서나 고동쳐야 한다.

창성의 불길은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여 자기의 행복을 마련해나가는 주체의 정신이다.

쓸모없던 산들을 《황금산》으로 만들어 꽃피는 새 생활을 창조한 창성사람들처럼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길들이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의 덕을 보며 벌을 가진 곳에서는 옥토를 살찌워나가야 한다.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의 열도이자 창조와 번영의 높이이다.

별로 눈길이 가지 않던 산도 귀중한 자원의 샘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가꾸면 갖가지 보물들이 쏟아져나온다. 자기 땅에 모든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심장은 놀고있는 자원, 묻혀있는 원천을 다 찾아보게 되지만 남의것을 쳐다보는 눈에는 무진장한 보물도 비껴들지 않는다.

자기 땅에 든든히 발붙이고 창성의 눈으로 보며 창성의 심장으로 창조하라.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볼수 있게! 이것이 중요하다.

창성식료공장에 가보시라.

빗장만 척 제끼면 원료창고에 꽉 들어찬 도토리가 좌르륵 쏟아져내리는 흐뭇한 광경앞에 누구인들 부러움을 감출수 있겠는가.

남들이 원료걱정을 할 때 3년분원료를 넉넉히 쌓아놓고 마음껏 생산활동을 벌리는 모습은 남의 도움을 바라며 제 살림을 꾸리려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새롭게 분발시킨다.

어디서나 자기 고장, 자기의 특산을 내놓아야 한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얼굴이 떠오르듯이 어느 시, 어느 군의 이름을 부르면 그 지방특산물의 표상이 선뜻 안겨와야 한다. 삭주에서 간장자랑을 하고 강계가 포도주자랑을 한다면 우리 군에는 무엇이 유명하고 또는 무슨 제품이 특색있다고 소리칠수 있게 지방마다 자기의 자랑이 될수 있는것을 경쟁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곳에서 한가지씩만 패권을 쥘수 있는것을 만들어낸다면 전국적으로 수백수천개, 그보다 더 많은 굉장한 특산들이 생겨나게 될것이다. 그것이 모두 세계적수준에 올라선다면 나라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지방공업이라고 하여 결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을수 없다. 농촌이라고 도시보다 뒤질것이 무엇이며 지방의 생산물이라고 하여 세계적인것에 견주지 못할것이 무엇인가.

군의 화학일용품공장에서 파수지를 가지고 발전된 나라의 제품을 릉가하는 《토끼섬》크레용을 생산해내고 바다기슭의 조개껍질로 만년화를 만들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대인기를 끌게 하고있는 리원의 경험은 귀중한것을 시사하여준다.

지방공업도 최첨단의 룡마를 타야 한다.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못해낼것이 없다.

야심만만한 창조적배짱으로 첨단기술의 정복자가 되여 나의 고장, 나의 군에서도 세계적인것을 내놓자.

창성의 불길은 첨단돌파의 불길이다.

어제날의 지방공업은 크지 않은 건물안에 설비나 몇대 들여놓고 여럿이 모여앉아 자기 지방의 원천을 동원하여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 군살림살이에 이바지하는것이였다.

새 세기에는 설비의 현대화수준은 물론 가공품의 지표와 질, 문화성에 있어서 완전한 비약을 이룩할것을 요구한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우리 인민의 문명수준은 비상히 높아졌다. 생산량에 만족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창성식료공장은 지방공업이 도달해야 할 새로운 높이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다래탄산단물, 가시오갈피단물, 찔광이단물, 삼지구엽초단물, 머루단물, 산딸기단물, 백살구단물…

가지수만 꼽자고 해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인데다가 질적수준도 매우 높아 평양에서도 그 인기와 수요가 대단하다.

소박한 지방특산에 불과하던것들이 이제는 큰 도시에서 중앙공업의 생산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21세기 《황금산》제품으로 이름떨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창성은 산과일가공에서 패권을 쥐여야 한다고 보다 높은 목표를 안겨주시였다.

지방공업도 군의 울타리를 넘어 중앙공업의 수준을 돌파할뿐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며 첨단을 향해 끊임없이 돌진해야 한다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리상이다.

모든것은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어떤 일군이 있는가에 따라 흥하는 고장이 될수도 있고 뒤떨어진 고장이 될수도 있다.

자기 지방의 공장들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질좋은 소비품들을 짱짱 생산보장하여 인민들로부터 우리 책임비서, 우리 인민위원장이라고 불리우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지방공업의 전진의 보폭이 커질수록 강성대국건설의 시간표가 앞당겨진다.

금수강산 내 나라에는 어디에나 귀중한 자원과 원천이 풍부하며 자랑이 많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고 뛰여난 슬기와 재능을 지닌 우리 인민이 결심하고 달라붙어 못해낼 일이 무엇이며 올라서지 못할 령마루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것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인민의 자존심과 창조적열의를 활화산처럼 분출시켜주는 창성의 불길이여, 더 거세차게 타오르라.

김일성조선이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어떻게 일떠서는가를, 우리 인민이 그려보는 행복의 리상이 어떻게 현실로 펼쳐지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자.

김 순 영

병사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은 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깊이 마음쓰시는 친어버이이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는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갈피마다에는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병사들사이에 꽃펴난 이런 가지가지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최고사령관은 병사들을 한피줄을 이은 아들딸로 여기고 병사들은 최고사령관을 친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는 혼연일체의 세계를 감동깊이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몇해전 4월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도 병사들을 위하시는 친어버이의 사랑을 뜨겁게 절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부대에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군인들은 목청껏 환호성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꾸린 군인회관을 돌아보실 때였다.

줄곧 만족한 시선으로 군인회관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회관무대와 좌석쪽을 번갈아보시면서 이쪽저쪽으로 자리를 옮기시였다.

(무엇때문에 그러실가?)

부대의 지휘관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하였다.

새로 꾸린 군인회관으로 말하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는 과정에 평가하신 회관들의 좋은 점들을 그대로 받아들인것이였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회관이 다 괜찮은데 바닥의 경사가 완만한것이 흠이라고 아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군인회관의 바닥은 군인들이 영화나 예술공연을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모든것을 군인대중의 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대하시는 그이의 세심한 사랑에 모두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병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은 그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식당에도 들리시였다.

지휘관들은 그이께 취사장에 푸짐하게 마련해놓은 음식감들을 보여드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곳으로가 아니라 물탕크쪽으로 가시여 그안을 들여다보시며 탕크에 받아놓은 물이 아주 맑다고 하시면서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정갈한 물에 비낀 부대지휘관들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치하하시였다.

자기들로서는 례사로운것으로 생각했던 하나의 먹는물을 두고도 병사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지휘관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끊임없이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고 가시여서는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길우에 꽃펴난 가지가지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총잡은 군인들을 친어버이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한없는 사랑의 세계를 웅변으로 전하여주고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편의봉사기지인 병사원을 비롯한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친어버이의 사랑과 은정을 한가득 부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으시였다.

군인들을 위한 길에 온넋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위대한 사랑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 병사들의 참된 삶이 빛나고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백 영 미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사상이 기본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곳에는 계급교양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부대의 지휘관이 그이께 생동한 자료와 실물을 가지고 군인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초소를 지켜가는 군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계급적각오가 높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잘해야 합니다, 사상이 기본입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사상이 기본!

우리의 총대는 사상의 총대이며 계급적자각이 무디여질때 천만자루의 총대도 맥을 추지 못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오늘도 우리 군인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사랑의 화폭

어느해 8월이였다.

찌는듯 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의 군무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이 진행하는 오락회를 보아주시기 위하여 야외휴식장으로 나오시였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하여 계단식으로 꾸려진 무대에서 병사들의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가 멋들어진 물통장단, 북장단에 맞추어 힘차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병사들의 모습을 미더운 눈길로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이 훈련의 쉴참에 리용하던 야외휴식장의 콩크리트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는것이였다.

딱딱한 콩크리트의자에 그이를 모시게 된 일군들이 급히 깔개를 가져다드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만류하시며 군인들이 콩크리트계단에 앉아 오락회를 하는것만큼 자신께서도 콩크리트의자에 그냥 앉겠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뙤약볕이 내려쪼이는 야외휴식장의 콩크리트의자에 허물없이 앉아 병사들의 오락회를 보아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크게 박수까지 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를 우러르며 감격에 눈시울적시는 병사들, 정녕 이 세상 그 어느 군력사에서도 있어본적 없는 사랑의 화폭이였다.

본사기자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해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답사길을 이어간다.

본사기자 강 정 민 찍음

회고록학습을 실속있게

2.8직동청년탄광 1갱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진행하여 큰 실효를 나타내고있다.

당조직에서는 회고록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교양자료직관물들을 잘 만들어놓고 탄부들이 회고록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회고록학습계획을 주, 월별로 세운데 기초하여 해설모임, 연구발표모임 등을 정상화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회고록학습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더욱 높아지고 석탄생산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한 막장에서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당조직의 한 일군은 현장에 내려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에 수록되여있는 《무장에는 무장으로》의 내용을 가지고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과 무장으로 맞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업적에 대한 감동깊은 내용으로 일관된 정치사업은 탄부들의 심장을 세차게 틀어잡았다.

막장에서의 회고록해설모임은 큰 은을 나타냈다. 이날 탄부들은 짧은 시간에 조성되였던 난관을 극복하고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로농통신원 김 청 일

대고조전투에서 당조직들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자

집행력이 강해야 실적을 낼수 있다

연안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이 정확히 관철되자면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사업을 포치하는데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당정책의 운명이 바로 자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결사관철하는 강한 집행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올해 영농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연안군당위원회는 이 점을 중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단위이며 군당의 주되는 사업대상은 농촌입니다.》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령도업적단위들인 오현협동농장과 읍협동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갖추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던 어느날이였다.

군당책임비서 주인흠동무는 오현협동농장 제2작업반으로 나갔다. 건설이 일정보다 처지고있다는 말을 듣고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였다.

농장을 담당한 일군은 자재가 미처 보장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였지만 실지 군세멘트공장에 내려가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만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였다. 세멘트수직로를 개조하면 생산을 무려 2배로 높일수 있을것 같았다. 이 하나의 사실에서 군당책임일군은 아무리 목표를 높이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진 일군들이 강한 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은을 낼수 없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군당위원회는 령도업적단위들인 여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 잘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속에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하는 투쟁기풍을 세워줄 의도밑에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군세멘트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던 날 현장을 찾은 군당책임일군은 로동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령도업적단위 농장들을 보다 훌륭하게 꾸리자면 첫째도 둘째도 세멘트공장을 만부하로 돌려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누가 해주지 않는다. 자체의 힘으로 해내겠다는 결사관철의 정신만 확고하면 궁리가 트이고 반드시 길이 열린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핀 군당책임일군은 군안의 능력있는 기술일군들로 강력한 력량을 편성하게 한 다음 앞선 단위의 경험을 배워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자들이 멀리 떨어진 덕천에까지 갔다왔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심을 가지고 수직로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수직로의 생산능력이 2배로 뛰여오르자 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대중의 열의는 비상히 앙양되였다.

이에 맞게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공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하면서 난관을 맞받아 나가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하여 이들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오현협동농장 제2작업반과 읍협동농장 제3작업반에 흙보산비료생산기지와 우렝이서식장, 가마니생산기지를 꾸려놓았다. 련이어 분조창고들과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도 더 번듯하게 일떠세웠으며 탈곡기도 개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농업부문 일군들이 영농사업과 관련한 목표를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강한 집행력을 발휘하도록 힘껏 떠밀어주고있는것은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의 하나이다.

탈곡기를 개조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던 어느날이였다.

군농기계작업소에 내려갔던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그곳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과철만 보장된다면 낟알털기전으로 수백대의 탈곡기를 능히 자체의 힘으로 개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예비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다.

실천을 통하여 이것을 체험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 가두인민반원들속에 내려가 내부예비를 찾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갔다.

—탈곡기를 개조하기 위한 일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티끌모아 큰 산이라고 모두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과철을 모으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설 때 탈곡기를 개조하고 올해농사도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다.

심장을 끓게 하는 일군들의 호소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가두인민반원들까지 내부예비를 찾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하여 이들은 많은 과철을 모아 농기계작업소에 보내주었다. 여기서 큰 힘을 얻은 농기계작업소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낟알털기전으로 수백대의 탈곡기를 개조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올해 군에서는 낟알털기전투의 첫시작부터 그 덕을 톡톡히 보았다. 낟알털기를 례년에 없이 질적으로 빨리 끝낸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의 륜전기재를 한대씩 대용연료를 리용하는 이동수리차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랬다.

군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포치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농기계작업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만들게 하였다. 처음 해보는 조건에서 신심을 주기 위해서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현지에서 진행된 보여주기는 그 실효가 컸다.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대용연료를 리용하여 각종 농기계부속품들을 생산하고 수리하는것을 목격한 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저저마다 자기 농장에서부터 먼저 받아들이겠다고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가운데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화물자동차를 대용연료를 리용하는 이동수리차로 개조하였다.

올해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동수리차를 리용하여 농기계수리를 3월말까지 전부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하여 올해 군에서는 농산작업에서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험은 연안군당위원회 일군들처럼 사업을 작전하고 포치하는데 그치지 말고 계획했던 문제들이 끝까지 집행되도록 당적지도를 안받침할 때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감정과의 사업을 계기에 맞게

강서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석탄증산투쟁에 떨쳐나선 강서탄광의 전투적분위기는 참으로 볼만 하다.

탄광에서는 요즘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석탄생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고 애쓰는 탄부안해들의 마음까지 합쳐져 더욱더 끓어번지는 탄전이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의 사실자료를 놓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게 된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사회주의경쟁에서 장훈을 부른 자랑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탄부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랑만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때 익살꾸러기로 소문난 청년갱의 한 탄부가 오늘은 안해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라고, 래일 그 정형을 총화하겠으니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너스레를 피우는 바람에 웃음보가 터졌다.

이 광경을 목격하던 초급당비서 엄인석동무의 머리에는 좋은 착상이 떠올랐다. 초급당일군들이 인민반들에 찾아가온 동네가 들썩하게 혁신자들과 그들의 안해들을 축하해주자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일군이라면 누구나 다 감정조직을 활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감정과의 사업을 계기에 맞게 진행해야 그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발시킬수 있다.

(인민반에 들어가 혁신자축하무대를 펼쳐놓자.)

감정조직의 계기를 포착한 초급당일군들은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함께 인민반들에 나가 그들을 축하해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되여 방송선전차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태우고 경쾌한 노래를 울리며 탄광마을로 향하였다.

뜻하지 않은 방송선전차의 출현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청년갱 굴진소대장 김일광동무를 비롯한 혁신자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달려왔다는것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은 너도나도 방송선전차에로 모여들었다.

방송원이 혁신자들의 소행을 소개해주고나서 남편들을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한 안해들의 이름까지 꼭꼭 찍어가며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자 온 탄광마을이 흥성거렸다.

이윽고 초급당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혁신자들과 그들의 안해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드린다고, 우리모두 석탄생산에서 더 큰 비약을 일으켜나가자고 호소하자 탄부들과 그들의 가족들, 인민반원들이 박수갈채로 이에 호응해나섰다.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감정과의 사업을 진행하니 교감도 잘되고 그 실효도 컸다.

혁신자축하무대는 강한 인상을 남기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청년갱, 8갱, 서부갱, 봉화갱을 비롯한 갱들에서는 집단적인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 새 기록, 새 기준이 창조되였다.

전진갱에 초급당일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탄부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킨 이야기, 오영석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이 갱막장들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탄부들을 위한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온 사실들은 계기에 맞게 감정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을 잘해나간 뚜렷한 실례들이다.

대상의 감정과 심리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정황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그에 맞게 감정조직을 잘하여 대중의 비상한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이런 당사업기풍은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최일호

사회주의경쟁에서도 방법론이 기본

김책시 호룡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매사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리에서 1단계 사회주의경쟁요강을 준비하고있던 어느날 리당비서 김동주동무는 뜻밖의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경쟁을 벌리기도 전에 일부 농장원들속에서 1등은 어느 작업반의 누구일것이고 2등은 어느 분조의 아무개일것이라는 등 순위를 나름대로 정하는 말들이 나돌았던것이였다.

리당비서로 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아 농장의 실정을 아직 잘 모르는데다가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말들을 듣게 되니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그날 저녁 리당일군은 농장에서 여러해동안 진행해온 사회주의경쟁총화자료들을 분석해보았다. 그 과정에 일련의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앞서나가는 사람은 계속 앞서나가고 일부 사람들은 계속 뒤자리에서 맴돌고있는 사실이였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리당일군은 많은 농장원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는 뒤자리만 차지하는 농장원들은 일손이 빠르지 못하거나 가정사정이 있는 농장원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은 경쟁이 시작될 때에는 결심을 가다듬었다가도 실적에서 어지간한 차이가 생기면 손맥을 놓고 나앉군 하였던것이다.

사회주의경쟁은 그 본질자체가 집단적혁신운동이다. 더구나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발전해나가는 사회이다. 그런것만큼 매 사람의 승벽심을 집단적인 경쟁심으로 계발시켜 정신력을 최대로 발휘할 때 사회주의경쟁의 생활력이 옳게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더우기 농장에서의 기본전투단위는 작업반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것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교훈을 찾고 사색을 기울이면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기마련이다.

이튿날 사회주의경쟁과 관련한 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개별적농장원들의 실적보다 작업반별, 분조별실적을 중시하고 평가한다는것을 경쟁요강에 밝히였다. 그리고 그 방법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우선 사회주의경쟁에 앞서 작업반, 분조들에서 매 사람의 수준과 준비정도, 성격과 취미에 맞는 일감을 분담하게 하였다. 개별적사람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총화와 평가에서는 실적이 높은 단위의 농장원들이 순위권에 들수 있다는것을 토의결정하였다. 그것이 큰 은을 냈다.

농장원들의 승벽심은 분조, 작업반의 일욕심, 집단의 경쟁심으로 승화되였다. 지난 시기 자기만 앞서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던 농장원들이 뒤떨어진 농장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더욱 일손을 다그쳤으며 뒤떨어진 농장원들은 새로운 신심과 활기에 넘쳐 경쟁판에 뛰여들었다.

온 농장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었다. 하여 지난해에 비해 모내기전투는 물론 모든 영농공정을 훨씬 앞당겨 끝내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속에 늘 뒤자리에 있던 제3작업반의 김동무를 비롯한 여러 농장원들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는 좋은 일들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 제1작업반의 리영희, 보수분조의 한춘화동무를 비롯한 많은 농장원들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닐수 있게 되였다. 이를 통하여 리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매 개인의 승벽심도 집단의 힘에 의거할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우리 사회의 본성인 집단주의를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이끌어나가고있는 리당위원회의 사업에는 본받을만 한 점이 있다.

오철권

불길굴공사에서 위훈을 떨치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린다. —황해남도려단에서—

—희천발전소건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도서선전활동을 활발히

선천군출판물보급소의 일군들과 보급원들은 도서선전을 활발히 진행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공격전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출판물보급소의 일군들과 보급원들은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내용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보급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활동내용을 수록한 도서선전을 예술선동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큰 힘을 넣었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술선동형식의 도서선전은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게 되였다.

보급소의 일군들과 보급원들이 진행하는 도서선전은 강연회를 비롯하여 대중이 많이 모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내용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여주는 이들의 참신한 도서선전은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녀장군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굳게 해주고있으며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청남탄부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청남탄부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뜻깊은 올해를 높은 생산실적으로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9월말까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년말까지 더 높은 생산실적을 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그리고 초급일군들부터 이미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청년동맹원들속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직장, 작업반들에서 생산을 늘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데 특별한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생산이 아무리 긴장하여도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학습을 어김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2직장, 3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모든 전투장들에서는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제품마다에 깨끗한 량심이 비끼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 작업반, 개인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그 총화를 잘함으로써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정치적평가를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평가도 옳게 하였다. 이렇게 되니 온 공장에는 경쟁열풍이 더욱 세차게 불게 되였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는 옳바른 관점을 지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종업원들의 후방공급사업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그대로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홍

종합식료공장들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방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각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들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고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해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공급하여 식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을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각 도들에 새로 건설된 종합식료공장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식료품생산을 위한 원료와 자재들은 모든 지방들에 다 있으며 따라서 그 소비도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지와 소비지에 접근되여있는 종합식료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현시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종합식료공장들의 생산활성화에서 나서는 방도는 무엇인가.

우선 시, 군일군들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이 종합식료공장들의 원료, 자재보장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원료, 자재를 생산에 앞세우는것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나서는 일반적요구이지만 종합식료공장들의 원자재보장사업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중앙공업기업소들에서 리용하는 원자재들인 광물자원이나 철강재, 합성섬유들과는 달리 종합식료공장들의 원료와 자재들은 대부분이 자연생산물이거나 농산물이다.

산열매, 산나물, 기름원료들은 계절이 지나면 쓸모가 적어지거나 리용할수 없게 되며 농산물생산도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우기 이러한 원료, 자재보장사업은 지방자체로 자기 지역의 자연경제적조건 즉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여야 하는 창조적사업이며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어디서나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자체의 힘으로 식료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얼마든지 마련할수 있다.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있는 산들은 모두 보물산들이며 식료공장들의 중요한 원료원천지이다. 그러므로 시, 군일군들과 종합식료공장일군들은 자연원료기지와 재배원료기지들을 집약적으로, 능률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온갖 식료원료원천들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종합식료공장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종합식료공장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은 새로 꾸린 현대적인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야 설비리용률을 높일수 있고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다.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은 생산규모가 커지고 기술장비들의 현대화수준과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더욱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된다.

최근시기 각 도들에 일떠선 종합식료공장들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최신설비들과 현대적인 기술수단들로 꾸려져있다.

이에 맞게 종합식료공장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군들의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생산자대중을 이 사업에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일군들은 종합식료공장의 특성에 맞게 현대적설비를 다루는 기대공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주인이 되여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모든 기대공들이 자기 기대를 한급높은 26호모범기대로 만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야 한다.

종합식료공장들의 생산을 활성화하자면 또한 생산자대중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계와 설비, 기술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다루어야 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이에 따라서지 못한다면 응당한 결실을 맺을수 없다.

새로 조업한 종합식료공장들은 현대적인 기술수단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있다. 따라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다.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자기 공장의 생산과 기술발전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이다.

각 도들에 있는 종합식료공장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원자재를 리용하여 식료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방특산물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것만큼 생산수단들도 응당 이에 맞게 꾸리게 된다.

이것은 종합식료공장마다 리용되는 원자재와 생산설비들에 맞게 그것을 다루는 생산자대중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기술기능은 일정한 기술지식과 로동수단의 합리적리용을 위한 재능이나 일솜씨이므로 구체적인 제품생산에 맞아야 쓸모있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종합식료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 공장의 기계와 설비들을 능숙히 다루어 같은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지방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구체적생산조건에 맞게 구현되여야 자기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모든 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한다.

김균주

년간계획을 끝낸 자랑안고 계속 혁신

문천발브공장에서

문천발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각종 발브생산에서 련일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여있는 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현장을 맡고 내려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규격의 발브생산에서 련일 혁신이 창조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주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자랑을 안고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맡겨진 생산계획을 언제나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용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쇠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있다.

청년발브직장에서는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발브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며 기세좋게 나가고있다.

이밖에도 공무직장과 공구직장을 비롯한 공장안의 모든 직장들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날마다 자랑찬 성과를 창조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인민의 참된 복무자

량강도인민보안국 정치일군 조일구동무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사람들의 마음속고충도, 생활의 구석구석도 헤아려 따뜻이 보살펴주며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것이 어머니당의 당일군이 갖추어야 할 고상한 풍모이다.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가는 당일군들속에는 량강도인민보안국 정치일군 조일구동무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자면 자기자신보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기쁨과 아픔을 자기의 기쁨과 아픔으로 여길줄 알아야 한다.》

5년전 어느날 아래단위사업을 료해하던 조일구동무는 백암군인민보안서의 한 인민보안원이 남기고간 15살 난 신금주, 13살 난 신은주, 11살 난 신봉철 세남매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불치의 병으로 아버지를 잃은지 얼마 안되여 그들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는것이였다. 졸지에 크나큰 슬픔을 당한 그들에 대한 생각은 조일구동무의 가슴을 미여지듯 아프게 하였다.

그는 지체없이 군인민보안서일군들과 함께 세남매의 집을 찾았다. 부모잃은 어린이들을 친자식처럼 말아키우고있는 아름다운 미풍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 세남매는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었다. 군의 일군들과 인민반의 주민들은 저마다 찾아와 자기들이 세남매를 맡아 잘 돌보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친척들도 찾아와 모두가 돌봐주고 관심해주니 금주의 세남매에 대하여서는 마음놓으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조일구동무의 가슴은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아,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 품에 안겨사는것인가.

위대한 인덕정치로 온 나라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북받쳐오를수록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가야 할 당일군의 본분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다음날 그들 세남매의 장래를 토의하는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조일구동무는 이렇게 힘주어 말하였다.

《부모잃은 그들을 우리 당조직이 맡아키웁시다. 우리모두가 친아버지가 되여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해 떳떳하게 산 부모의 뒤를 꿋꿋이 이어가도록 합시다.》

얼마후 인민보안원들이 떨쳐나 세남매가 살던 살림집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가정용품으로부터 부엌세간에 이르기까지 새로 갖추어지고 안팎이 몰라보게 환해진 자기들의 집을 보며 세남매는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꼭 안아주며 조일구동무는 뜨겁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우리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모두가 공부를 잘해서 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려야 한다.》

친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 세남매의 가슴속에 봄물처럼 흘러들었고 그속에서 그들은 마음속에 한점 그늘도 없이 마음껏 공부하였다.

혁명동지가 남기고간 자식들을 끝까지 잘 돌보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혁명적의리로 여긴 조일구동무는 출장길에 집에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로 생활에서 제기되는것이 없는가, 공부는 잘하는가를 늘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반찬감이며 땔감,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마음쓰며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살펴주었다.

언제인가 조일구동무가 그들의 집에 들렸을 때였다. 둘째인 은주는 언니가 손질한 고운 옷을 떨쳐입고 《고와요?》라고 방긋 웃으며 이 옷을 입고 래일 들놀이를 간다고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조일구동무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가. 이젠 은주도 처녀꼴이 다 잡혔는데 친아버지라면 미리 생각했어야지.)

다음날 아침 조일구동무가 은주나이또래의 처녀애들이 좋아하는 새옷을 마련해가지고 세남매의 집에 들어섰다.

《빨리 오느라고 했는데 늦었구나.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다.》

은주의 두눈에 가랑가랑 눈물이 맺혔다. 생일과 명절이면 부모잃은 자기들이 쓸쓸해할것 같아 찾아와서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늘 마음쓰는 조일구동무가 친아버지처럼 생각되여 은주는 스스럼없이 품에 안기며 말하였다.

《고마와요.》

《어서 입어보아라. 새옷을 입고 기뻐하는 네 모습을 보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고마움의 인사는 너희들만이 아닌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아버지장군님께 드려야 한다.》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다.

《꼭 아버지장군님께 기쁨드리는 딸이 되겠습니다.》

부모잃은 자기들에게 옷음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 애쓰는 고마운 사람들의 다심한 그 손길이 다름아닌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과 잇닿아있음을 그들 세남매는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느꼈다.

그 품을 목숨바쳐 지켜갈 맹세를 안고 지금 맏딸 신금주와 막내인 신봉철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의 군복을 입고 성스러운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이고있으며 둘째딸 신은주는 그 품을 떠받드는 미래의 기둥감들을 억세게 키워갈 포부를 안고 혜산교원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있다.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온 나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같이 따사로운 사랑이 한점 그늘없이 그 어디에나 비쳐가도록 하는 길에서 어머니당의 당일군된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조일구동무의 고상한 풍모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도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물소리, 새소리만 들려오던 삼수군 삼곡땅에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과 소학교분교,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형수력발전소들을 갖춘 번듯한 농목장이 새로 일떠섰을 때였다. 그 농목장의 로력문제를 토의하는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조일구동무는 혜산중등학원 졸업생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동안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조일구동무는 자기의 두손을 펼쳐보였다.

《열손가락중에 어느 하나를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있는 아이들보다 많은 품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의 오늘뿐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져야 합니다.》

중등학원원아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혁명의 새 세대들이라고, 모두가 친부모가 되여 그들을 그 어떤 눈보라에도 꺾일줄 모르는 백두의 이깔로, 철쭉으로 훌륭히 키우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절절하게 말하는 조일구동무의 호소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리하여 도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들모두가 떨쳐나 친부모가 된 심정으로 농목장에 진출하는 중등학원졸업생들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쳤다. 사회생활의 첫 자욱을 내짚는 그들에게 옷과 신발, 생활용품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고 그들이 생활할 합숙방이며 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 침구류와 생활도구에 이르기까지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정을 아낌없이 기울이였다. 농목장에 진출하는 중등학원졸업생들과 함께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은 조일구동무는 심장의 맹세를 굳게 가다듬는 원아들을 미덥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해빛이 있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동무들의 보람찬 삶도 행복도 꽃펴나는것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농목장의 주인으로 자라나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조일구동무는 그들에게 집단주의정신과 동지애를 심어주고 언제나 원칙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때로는 그들의 합숙에 찾아가 한이부자리를 펴고 아버지처럼 곁에 누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알고 집단을 사랑하는 참된 인간이 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군시대 청춘의 영예는 어디에 있는가를 일깨워주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는 조일구동무의 응심깊은 마음은 중등학원졸업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졌다. 이런 뜨거운 사랑속에서 그들은 농목장을 떠메고나가는 혁신자로 자라났다.

그 농목장에서 첫 염소젖이 생산되였을 때에도 조일구동무는 그것을 먼저 도육아원원아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였다.

《우리가 고생을 하며 이곳에 농목장을 일떠세운것도 보다 좋을 래일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을 우리가 앞장서 꽃피워갑시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이면 농목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염소젖이 도육아원원아들에게 어김없이 공급되였다. 염소젖을 실은 차의 경적소리와 함께 육아원의 하루일과가 시작되였고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소리높이 웨치는 원아들의 노래소리는 저 멀리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져갔다.

인민보안원들이 인민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풀어주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꽃피워가는데서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해가도록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는 정치일군,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친부모의 심정으로 풀어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한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꽃피워가도록 밀거름이 되고있는 우리 인민보안일군…

참으로 조일구동무가 지닌 고결한 인간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한몸바쳐 받들어가려는 고결한 충정에 바탕을 두고있다. 이런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이 있어 우리 인민은 당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호혁
특파기자 전철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수십편의 시가작품 창작발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들이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시대를 선도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십편의 시가작품들이 창작발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시인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빛내인 긍지와 자부심속에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인민의 지향이 반영된 시가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대중과 숨결을 같이하며 창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시 《우리 수령님 축복하신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축복속에 로동당시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무궁토록 번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천만군민의 영광과 행복, 당을 따라 한길을 걸어갈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시 《추대》, 《영원히 받들리》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소식에 접하고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의 환희와 격정을 담은 시 《기쁜 아침의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시 《우리에겐 당이 있다!》는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밝은 앞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인민의 모습을 실감있게 형상하였다.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삶을 빛내인 영웅전사들의 모범을 본받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려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철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시 《당중앙을 총대로 받들리라》도 창작되였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시인들은 호소성이 강한 시들을 창작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창조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더 큰 위훈을 세우도록 고무하였다.

한편 시대의 진군을 추동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는 가사 《대비약 앞으로》, 《승리자로 만났네》 등이 창작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벌리고있는 근로자들의 투쟁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시인들은 온 나라를 과감한 돌격정신과 창조의 기백으로 끓어번지게 하는데 기여할 명시, 명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웰남국가주석에게 신임장 봉정

웬 밍 찌엣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김창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6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웬 밍 찌엣주석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웰남당과 국가, 인민은 민족해방투쟁과 나라의 건설위업에 돌려준 조선당과 국가, 인민의 귀중한 지지성원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있다.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진 전통적인 관계이다.

웰남당과 국가, 인민은 이를 귀중히 여기고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평천구역종합양복점 금강양복점에서 녀성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조선옷을 만들어 봉사를 잘하고있다. 본사기자 찍음

천연살충제들을 연구개발

평양천연향료연구소에서 새로운 천연살충제들을 연구개발하였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쳐 천연살충제개발을 위한 고심어린 탐구를 벌려왔다.

연구결과 이들은 식물성정유가 억균력이 세다고 하는 나노은에 비하여 거의 수만~수십만배, 그 혼합비에 따라 더 큰 효과를 낸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이들은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식물성정유가 화학약제들과는 달리 일반 피막은 물론 각질피막까지도 부풀게 할뿐아니라 나노화되여 곤충, 번데기, 알 등에 쉽게 침투할수 있으며 보다 짧은 시간에 살균살충효과를 얻을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였다.

식물성정유에 살균살충성유기물질들을 적은 량 첨가하여도 살충살균제의 효능을 몇배나 더 높일수 있다는것도 증명되였다.

이 연구성과는 도입한 단위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지방공업혁명의 불길드높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몸소 우리 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세기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지금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군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김철의 호소를 받아안고 우리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식료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과학화하고 지방의 원천에 의거하는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따라세움으로써 식료품생산을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직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적은 로력을 가지고도 질좋은 직물과 뜨개옷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우리 군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기초식품과 단물, 산나물장절임 그리고 여러가지 천, 뜨개옷을 비롯한 인민소비품들은 그 질이 높아 인민들이 좋아하고있다.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식이 한 장한 일을 두고 그토록 대견해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들의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군이 자체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문제를 풀며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꽃피우자면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군의 식료공장과 직물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여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본보기공장,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군소재지를 더욱 번듯하게 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는데서도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목표는 높고 일감은 방대하지만 대중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다.

문제는 당정책의 운명을 걸머진 우리 일군들이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총폭발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나는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대중을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겠다. 군당위원회는 대중의 가슴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사상을 깊이 심어주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일심단결의 대오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겠다.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해 한몸을 내대고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이끌어나가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군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새 세기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김철의 호소에 힘차게 화답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창성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림진섭

군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을 동원하여 수행하겠다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얼마전 창성군의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는 우리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지난 몇해동안 우리는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높이에 비해볼 때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군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우리는 이런 배심과 신심을 안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개건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활기있게 벌려나가겠다.

물론 자체의 힘과 기술,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모든것을 우에서 보장해주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거나 설비타발, 조건타발을 하면서 우는소리를 한다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설비개조도 자체로, 자재보장도 제힘으로 해내겠다는 일군들의 확고한 관점과 립장, 이것이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우리 군의 장공장에서 기술개건전투를 벌릴 때였다. 원료운반계통에 필요한 한 설비를 해결하자면 많은 품이 들어야 하였다. 그때 장공장에 나간 군의 일군들은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그 설비는 구태여 자금을 들여 구입하지 않고도 군안의 기술력량만 잘 발동하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졌다.

우리는 군안의 기술력량을 총발동하여 장공장만이 아니라 군안의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혁신돌격대를 조직하고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 과정에 기술개건사업에서 걸리고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였다.

우리는 지방산업공장들에 필요한 원료원천을 마련하는 문제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갔다. 군중을 발동하여 피마주심기를 대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군화학일용품공장의 원료문제를 풀었으며 경제림조성사업과 원료기지운영을 근기있게 밀고나가 장공장, 종이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에 원료를 제때에 보장해주고있다.

자력갱생이 제일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기 군의 살림살이는 자기 손으로 풀어나가겠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 세기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겠다.

연탄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로력영웅 라창렬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우리 장공장에는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다.

삼지연군 인민들과 답사자들을 위해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장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5월에 몸소 공장에 찾아오시여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질좋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할 일념안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는 무엇보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어버이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후 종업원들 모두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습득하고있다. 또한 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였으며 누구나 현대적인 설비들에 정통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이와 함께 경공업과학분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생산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렸다. 그 나날에 곡자생산공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였으며 자체의 종곡생산체계가 확립되고 발효공정의 콤퓨터화와 기름정제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도 마련되였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된 질좋은 기초식품은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첨단을 돌파하고 가지수도 더 늘여 맛좋고 질높은 기초식품을 짱짱 생산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확고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튼튼히 틀어쥐고 생산의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겠다.

삼지연장공장 지배인 장룡삼

교정에 넘치는 드높은 열정

평안남도간호원학교에서

평안남도간호원학교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최근년간 나날이 그 면모를 일신하는 이 학교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향토애와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학교, 자기 군과 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변의 불길은 일군들의 심장에서부터 타올랐다.

교장 주란옥동무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다. 그에게 남다른것이 있다면 학교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려는 일욕심이다.

강의실, 실험실들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건물을 일신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을 때 이들에게는 있는것보다 없거나 모자라는것이 더 많았다. 더우기 교수사업을 중단없이 내밀면서 꾸리기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말처럼 헐한 일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보폭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주란옥, 장상철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자신들이 직접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하나씩 맡아 모가 나게 해제끼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막돌보장문제가 긴급하게 제기되였을 때에는 밤잠도 미루어가며 학교주변을 메주밟듯 하여 끝내 원천지를 찾아내였고 때로는 수백리 떨어진 먼곳에까지 찾아가 필요한 자재들을 해결해오기도 하였다.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힘찬 투쟁을 벌려온 나날속에 학교의 면모는 날을 따라 달라져갔고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드디여 수백㎡의 부지면적에 새 교사가 번듯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이와 함께 종합실습실, 종합강의실들이 훌륭히 꾸려져 보다 훌륭한 교육환경과 조건에서 교육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사업의 질을 높이고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고 모든 교수를 철저히 다매체편집물에 의해 진행하는 기풍이 확고히 세워졌다. 바친 땀과 노력은 그대로 열매로 맺혀 학교는 지난 8월에 진행된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남다른 자랑도 지니였다.

이룩한 성과는 크지만 이들은 자만을 모르고 올해공동사설과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계속혁신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가고있다.

엄광철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

오늘 우리 민족은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속에서도 6.15통일시대를 과감히 떠밀어가고있다. 외세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반통일책동은 날을 따라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지만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이 억척같이 뿌리내리고있다. 그것은 불패의 선군정치가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승리를 굳건히 담보해주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불패의 혁명무력에 의거하고있는 우리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담보하는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반제자주의 정치이며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입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높이 받들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였다. 선군의 기치아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비약과 전진이 이룩되고있으며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도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불패의 혁명무력에 의거하여 외세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투철한 반제자주의 정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는 평화수호의 보검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주는 투철한 반제자주의 정치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자주위업이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위업의 생명선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악랄하게 유린하고있는 세력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으며 조국통일문제에 간섭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자면 민족문제해결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문제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투철한 반제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다. 선군정치에는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배짱과 담력, 외세의 그 어떤 횡포와 도전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는 백승의 힘이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나라의 영구분렬을 꾀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하고 악랄해지고있다. 일찍부터 미국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단합과 통일에로 나아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분렬리간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6.15통일시대의 힘찬 전진으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체계가 뒤흔들리는데 질겁한 미제는 그로부터의 출로를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데서 찾으면서 반통일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하고있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과 야합하여 반공화국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괴뢰들을 동족대결에로 내몰면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다. 동족대결을 극도로 격화시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범죄적기도로부터 미국은 우리 민족문제에 간섭의 마수를 집요하게 뻗치고있는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겨레는 언제 가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없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겨레로 하여금 민족자주위업의 필승의 보검인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주는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평화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안전도 담보할수 없고 평화통일을 위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도 실현해나갈수 없다. 평화보장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필수적전제이다.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그를 발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을 부단히 강화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우리 겨레가 겪은 전쟁의 참화는 미국의 반공화국침략기도가 빚어낸 비극이다. 전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화약고로, 북침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괴뢰들을 북침전쟁도발에로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은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으며 평화통일위업도 커다란 시련을 겪고있다.

평화는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씻어야 한다는것이 지나온 력사와 현실을 통하여 우리 겨레가 뼈저리게 통감하고있는 교훈이다.

내외호전세력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무적의 군력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강위력한 정치이다. 우리 당은 날로 악랄해지는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며 평화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숭고한 의지로부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다. 선군의 기치에는 전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려는 숭고한 애국의 의지가 비껴있고 내외호전세력의 반공화국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불패의 위력이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악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은것은 강위력한 선군정치가 있었기때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평화수호의 방패, 민족운명수호의 보검으로 굳게 믿고있다.

지금 내외호전광들은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더욱 발악적으로 날뛰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위적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정당한 선택이였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 반평화책동이 더욱 악랄해질수록 선군의 기치는 더욱 높이 휘날릴것이며 선군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지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여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은 정 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반민족적망동

동족을 해치기 위한 남조선보수패당의 외세공조책동이 연평도포격사건을 구실로 절정에 달하고있다.

얼마전 워싱톤에서 남조선외교통상부 장관과 미국무장관, 일본외상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여기에서 괴뢰외교통상부 장관은 그 무슨 《북의 도발》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추가도발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긴밀한 협력》 등을 구걸하고 상전들과 10개 항으로 된 《성명》이라는데 도장을 찍었다.

괴뢰호전광들은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추가도발시 전투기와 함포 등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른바 《자위권행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으며 앞으로 또 한차례의 대규모적인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벌린다는것을 합의하였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유엔에서 또다시 반공화국결의안을 조작할 심산으로 미일상전들을 비롯한 외세와 련일 쑥덕공론을 벌리고있다. 그야말로 외세에 명줄을 건 사대매국노들의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외세와의 공조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에 의거하여 잔명을 부지해가는 남조선보수패당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체질화된 매국노들이 동족과 대결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놀음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괴뢰들은 지금 연평도포격사건을 걸고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외세를 적극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혜덤비고있다. 이번에 괴뢰들이 《공동대응》이니, 《긴밀한 협력》이니 하며 상전들에게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고 그들과 야합하여 위험천만한 전쟁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낸것은 사대매국의 극치로서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더한층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반민족적망동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외세의 손발을 부여잡고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요란히 떠들면서 분주탕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파렴치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쌍방이 첨예하게 맞서고있는 조선서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고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고수》를 떠들어대며 이 일대에서 대결과 충돌을 야기시켜온것이 바로 괴뢰들이다. 이번 연평도일대의 우리측 령해에 대한 포사격은 그 연장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일당이 미일상전들과 작당하여 우리를 모해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하나 외세와의 《동맹》강화와 동족압살의 계기로 만들려고 발악하는 그들의 추악한 반민족적정체를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긴장해지고 대결국면이 첨예화되면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미국과 일본이 또다시 큰 리득을 보게 되였다는 외신들의 평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조선반도에서 전략적리익을 추구하는 외세가 이 지역의 정세긴장으로 리득을 보면 볼수록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민족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그 피해란 다름아닌 북남대결이며 북침전쟁이다.

하지만 남조선보수패당은 오로지 동족압살이라는 범죄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의 운명과 리익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외세와의 공조강화에 서슴없이 나서고있다. 자기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켜 외세의 리익만을 차려주며 그의 지지와 뒤받침밑에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는 이런 매국역적들을 과연 용납할수 있겠는가.

외세의 비호와 부추김밑에 기세가 등등해진 남조선호전광들은 지금 제 죽을줄도 모르고 그 무슨 《자위권행사》에 대하여 떠벌이고있다.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들이 《자위권행사》의 간판밑에 외세와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것인가는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의 반공화국공조책동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최 철 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며칠전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그 무슨 《학술회의》라는데서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해 그 누구의 《최악의 선택》이니 뭐니 하였는가 하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치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한다.》는 도발적인 망발을 줴친것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이를 규탄하는 서기국보도 제969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북남관계가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로 치닫고있는 오늘의 험악한 사태를 두고 내외가 깊이 우려하고있는 때에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현인택이 지껄인 대결망발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그 진상이 밝혀진바와 같이 연평도포격사건은 특대형모략극인 함선침몰사건의 연장으로서 현 남조선호전광들이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기운을 억누르고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하며 외세와의 사대매국적결탁을 강화하여 북침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작한 군사적도발이다.

괴뢰패당은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조선에서 대결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막다른 궁지에서 벗어나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결국 괴뢰패당은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하여 군사적충돌을 유발시키고 이를 기화로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는 전쟁도발망동을 감행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이것은 최악의 선택을 한것이 다름아닌 괴뢰패당자신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현인택이 인권이니, 시장경제니 하는것을 내들고 감히 조선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가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줴쳐대면서 체제대결흉심을 또다시 드러낸것이다.

현인택의 악담은 연평도포격사건을 비롯한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소동이 결국은 어리석고 허망한 체제대결을 실현해보려는데 궁극적목적을 둔 고의적인 도발이라는것을 더욱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상전에게 매달려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가는 가련한 친미졸개, 식민지주구따위가 주제넘게 미래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무덤의 망두석도 웃지 않을수 없는 희비극이다.

우리와 체제대결을 해보겠다는것은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는것과 같은 부질없는짓이다.

현인택은 허튼 망발로 온 민족의 더 큰 조소와 규탄을 받기전에 내외여론의 요구대로 스스로 물러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허울좋은 공약, 여론을 오도하는 사기극

허튼 공약을 내놓고 인민대중을 기만우롱하는것은 남조선보수패당의 상투적통치수법의 하나이다.

그들은 저들에게로 향한 분노한 민심의 화살을 막고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고 인민들에 대한 회유기만책동에 갈수록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심을 받아들인다.》느니, 《변화를 원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느니 뭐니 하고 생색을 내는가 하면 《청년실업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떠들고있다. 하다면 그것이 과연 실천성있는 공약이겠는가.

아니다.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고 한푼의 가치도 없는 빈말공부이며 민심기만극이다.

다른것은 그만두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보수당국의 공약만 놓고보자.

얼마전 《한나라당》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청년들을 모독하는 고약한 소리를 줴쳤다. 그는 남조선에서 실업사태가 빚어지고있는 원인이 마치도 청년들의 잘못에 있는듯이 떠벌이면서 청년들을 대학졸업후 곧바로 《취직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립법화해야 한다.》는 등의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명색이 집권당인 《한나라당》소속의 《국회》의원이란자가 청년들의 취직을 막는 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뽑게쯤 되였으니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조선당국의 공약이 얼마나 허황한것인가는 더 론의할 여지도 없다.

《한나라당》패거리의 망발은 청년들을 비롯한 남조선사회 각계의 커다란 분격을 자아내였다. 야당들은 그의 이러한 발언은 《당국의 악정으로 벼랑끝에 몰린 청년들을 두번다시 죽이는 망언이며 청년실업사태를 낳는 사회구조적문제를 외면한 무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현〈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대기업들만 살판을 만나고 중소기업들은 무리로 파산되고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실업사태의 원인이 청년들의 잘못에 있는듯이 오도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들이대였다. 남조선의 한 진보단체도 빈껍데기에 불과한 《청년실업대책안》으로 청년들을 기만하지 말고 실업자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당국에 요구해나섰다. 이것은 남조선민심이 보수패당의 회유기만술책의 내막을 환히 꿰뚫어보고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보수당국이 4대강정비공사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아대는것도 헛나발이다. 남조선언론들에 의하면 올해 2.4분기 20대, 30대의 건설로동자수는 4대강정비공사가 강행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 7 000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사실상 4대강정비공사로 덕을 보는것은 청년들이 아니라 당국과 결탁된 일부 건설기업체들이다. 당국은 인민들의 혈세로 재벌들의 배만 채워주고있다. 남조선의 한 방송이 《4대강정비공사는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와도 같다. 4대강정비공사비때문에 교육, 서민관계 〈예산〉이 크게 줄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서민들이다. 4대강정비공사는 서민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밖에 말할수 없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보름동안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청년실업대책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였다. 근로대중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는 반인민적정책으로 인하여 날로 악화되는 청년실업사태를 단 보름동안에 해결하겠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렇게 얼렁뚱땅 만들어낸 《청년실업대책안》은 골백개 나와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남조선을 《실업지옥》으로 만든 저들의 반역적악정에 분칠하기 위한 하나의 얼림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청년실업자수는 계속 불어나고있다. 15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실업률은 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해도 2000년이래 최고수치를 기록하고있다. 보수패당이 올해 《예산》에서 수억US$이상의 자금을 《실업자문제해결》 등에 쓰겠다고 떠들었지만 보는것처럼 남조선에서 실업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더욱 악화되고있다. 남조선의 처참한 현실은 보수패당의 《청년실업문제해결》공약이 가짜라는것을 고발해주고있다.

리명박패당은 남조선에서 청년실업자대렬이 계속 늘어나는것은 《대학생들의 눈이 높기때문》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악담을 해대면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에 부채질하고있다.

남조선의 《MBC》방송은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있는 실업사태의 일단을 이렇게 전하였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더한 슬픔의 시대에 살아가고있다. 창창한 20대가 취직을 못해 미안하다며 생의 마감을 하는가 하면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힘들어 가장들이 자살까지 하고 생계때문에 어쩔수없이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오죽 사는게 어려웠으면, 오죽 힘이 들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거짓은 사실로 될수 없고 회유기만은 들장나기마련이다. 반역패당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댄 《실업난 해소》, 《희망근로사업》(빈곤층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 《보금자리주택정책》, 《보육지원정책》, 《등록금후불제》 등 《친서민정책》공약들은 어느것이나 다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패당의 거짓공약에 너무도 많이 속히워온 남조선인민들은 이제는 당국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듣지 않고있으며 반역적악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있다.

리명박패당은 허울좋은 공약으로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는 그 죄악의 대가도 치르어야 한다.

본사기자 엄 일 규

괴뢰호전광들 지상협동훈련계획 공표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륙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와 가평일대에서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11일 공표하였다.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침투》와 《국지전도발》에 대해 떠들며 대규모의 병력과 함께 공무원, 경찰들까지 전쟁연습에 내몰려 하고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리명박괴뢰호전광들의 련이은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악화되고있다.

신형독감환자 발생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형독감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수십명의 학생들속에서 열이 나는 등 독감증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등교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여

최근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쌍룡자동차로조원들은 지난 11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지고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업주측이 경영파탄의 책임을 로동자들에게 넘겨씌워 수많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해고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면서 당국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주범을 처벌하고 해고한 로동자들을 복직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무장한 파쑈경찰들과 맞서 격렬한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장 비정규직로조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도 남조선 각계의 지지와 련대속에 격렬히 진행되였다.

11월 16일 로조는 공장정문앞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로조원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초불집회를 중단없이 진행하며 이와 함께 선전활동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다음날 로조원들은 주변의 다른 공장들도 점거하고 그곳에서 롱성투쟁을 벌렸다.

민주로총도 울산에서 비정규직철폐와 로동자들의 생존권쟁취를 위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현대자동차공장 비정규직로조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고있는 업주측을 비난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것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까밝혔다. 그들은 당국의 반로동자정책에 항거하여 분신자살한 로조원 황인화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각계가 련대하여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로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은 11월 16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자들의 생존권사수투쟁을 지지하는 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현대자동차공장 업주측이 비정규직로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데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을 일자리에서 내쫓았으며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을 동원하여 마구 탄압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당국과 업주측이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로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면서 회견문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공동대응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파쑈악법으로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일삼고있는 보수당국의 반로동자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도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민주로총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단체는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직업안정법개정안》은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이라고 까밝히였다.

이어 당국의 반로동자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갖 악법철폐와 로동권리보장 등을 요구하여 결의대회, 대표자회의, 롱성을 비롯한 총궐기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공무원로조도 11월 2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로동기본권보장을 요구하여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단체는 현 《정부》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그들의 합법적권리마저 박탈하는 《공무원로조특별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적인 로조활동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로동탄압 중단하라!》, 《민주로조 사수하자!》, 《우리는 일하고싶다!》, 《로동자, 서민 다 죽이는 리명박〈정권〉 박살내자!》

남조선 각계의 반《정부》투쟁현장마다에서 힘차게 울려나오는 이러한 투쟁구호들과 웨침들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역《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참을수 없는 분노와 견결한 투쟁으로 삶의 권리를 되찾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그들의 억센 투쟁의지가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김 현 철

무모한 불장난소동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30개 단체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불장난소동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국방부가 이날부터 남조선의 동해와 서해, 남해의 무려 29곳에서 일제히 포사격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떠벌인데 대해 언급하고 여기에는 북 코앞의 서해 5개 섬의 하나인 대청도도 포함되여있다고 밝혔다.

더우기 새로 임명된 국방부 장관이 호전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기가 조성되였다고 하면서 사태의 책임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추구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리명박《정권》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위험천만한 군사적대결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대화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괴뢰당국의 전쟁대결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권》모략소동

최근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남조선보수패당의 책동이 극도로 악랄해지고있다. 그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책동은 《인권》모략공세를 강화하는데서도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지난 11월 19일 남조선당국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고 그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 무슨 《북인권결의안》이니 뭐니 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정치적음모의 산물이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북인권법》을 《핵과 〈인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압박하는 기틀》이라고 규정한것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하며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벌린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이 기울여지고있는 때에 벌어졌다는데 있다. 이것은 보수패당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이 북남관계개선기운을 차단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켜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극단적인 상황에로 끌고감으로써 골수에 배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망상을 실현하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보수패당이 이번에 유엔에서 또다시 우리를 걸고들며 《인권》모략소동을 벌린데는 최악의 인권유린지대인 남조선의 처참한 현실을 가리우고 민심의 분노를 딴데로 돌리려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면 그것을 유린하고 짓밟는것은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만행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보수세력이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악명높은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인민들의 정치적자유를 구속하고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있다. 남조선의 감옥들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신념과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리유로 수많은 통일애국단체성원들과 민주인사들이 《친북좌파》, 《리적분자》로 몰려 쇠고랑을 차고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국은 한 로동자가 인터네트싸이트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고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편집물들을 여러차례 올린것을 구실로 그를 구속기소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 한가지 사실을 놓고도 남조선사회에서 인간의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리명박독재《정권》하의 남조선에서 인권유린실태는 말그대로 최악이다. 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에 대한 《초강경대응》과 그 무슨 《80년대식탄압》을 떠벌이며 과거 군부독재시대의 몸서리치는 폭압만행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폭압에 환장한 경찰깡패들은 시위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때려눕히다 못해 쓰러진 연약한 처녀대학생을 군화발로 짓밟고 유모차를 끌고가던 주부들에게까지 물대포를 마구 쏘아댔다. 남조선당국이 지난해 생존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며 롱성투쟁에 나선 맨주먹뿐인 롱산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무참히 불태워죽인것은 실로 세상을 경악케 한 인권유린만행이였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며칠전에는 희생된 철거민을 《공권력에 저항한 폭도》라고 하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철거민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곳곳마다에서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으로 시름에 잠긴 수많은 주민들의 한숨짓는 소리가 그칠새 없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썩은 사회를 원망하고 반역통치배들에게 저주를 보내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보다싶이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통치는 류례없이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빚어내고있다. 남조선인권실태가 하도 험악하기에 국제대사령도 남조선당국이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있다는 년례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수많은 해내외단체들이 성명, 담화들을 발표하면서 남조선집권세력이 저지르는 엄중한 인권침해행위를 단죄규탄하고있다.

이렇듯 최악의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소롭고 역겨운짓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으로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며 저들의 험악한 인권실태를 가리워보려고 획책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개가 사람을 문다고 반역정책의 실패와 국도의 정치적혼란으로 하여 위기에 처한 남조선당국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면서 《인권》모략소동을 비롯하여 반공화국도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보수패당이 제아무리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내외의 조소와 규탄만을 자아낼뿐이다.

본사기자 복 은 희

온 누리에 뜨겁게 굽이친 위인흠모의 대하

어느덧 이해도 다 지나가고있다.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련이어 일어나 세계를 여느때없이 떠들썩하게 한 2010년, 세상사람들은 하많은 사연을 안고 바야흐로 저물어가는 이 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올해 첫시작부터 진보와 반동간의 날카로운 대결이 벌어졌다. 세계제패를 노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나라들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위험이 조성되였다. 대국들사이에 세력권과 전략적리해관계를 둘러싸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시키는 온갖 잡소리들이 튀여나왔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테로공포증이 세계를 휩쓸었다.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제 나름의 견해를 가진 서방정객들이 분주히 뛰여다니며 화려한 언변술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제 리속을 챙기려 하였다.

허나 이러한 복잡다단한 국제정세흐름속에서도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사회주의조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세계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이였다. 만민은 탁월한 선군령장, 세계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인류력사가 자기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사람들의 기대와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 인류의 자주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계정치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시여 이해 첫시작부터 정력적인 혁명활동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령활무쌍하게 주도해나가시였다. 세계는 우리 장군님의 혁명활동에 발걸음을 맞추며 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였다.

우리의 행성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흠모열기로 끓어번졌다. 진정 2010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자욱이 국제정치무대에 력력히 새겨지고 위인흠모와 칭송의 목소리가 세계를 진감한 격동적인 한해였다.

2010년, 이해가 시작된 첫날부터 세계의 관심은 우리 장군님의 혁명활동에 쏠리였다. 지난 기간 뛰여난 정치실력으로 세계를 매혹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해에는 어떤 력사적인 활동을 벌리시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의 첫 혁명활동을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것으로부터 시작하시였다. 희천발전소에 이어 재령광산현지지도, 련이어 진행되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대한 그이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세계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에서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구애됨이 없이 배포유한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의 인사들이 우리 장군님께 자기들의 진정을 담은 축전과 편지 등을 보내오고 선물을 올렸다.

특히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에 즈음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경축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여 2월의 명절을 인류최대의 국제적축전으로 장식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고 우리 장군님께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으로 열렬히 칭송하였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왕 아브둘라흐 2세가 절세의 위인들께만 올리는 옥돌공예품을 성의껏 마련하여 삼가 올리였다.

이뿐이 아니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과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 《21세기관현악단》,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 《마크》유한책임회사 사장, 뻬름시 《쏘유즈 스뜨로이》유한책임회사 사장, 수리아 라따끼야도 상공업 및 부동산투자회사 사장, 메히꼬 오아하까주 장관, 오아하까시 전 시장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단체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그이께 선물을 올리였다.

선물들에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실천으로 자주의 새시대를 펼치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영원불멸할 공헌을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와 신뢰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여러 나라들에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여 그이께 훈장과 상장, 메달, 명예칭호 등을 수여해드리였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네팔기자협회는 선물과 함께 《2009년 평화상》을, 메히꼬 오아하까주에서는 《탁월한 벗》명예칭호를 수여해드리였다. 로씨야국제자선단체련맹 《선의의 세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훈장을 수여해드리기로 결정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경모하며 따르는 세계민심의 이러한 흐름은 뜻깊은 2월만이 아니라 온 한해동안 끊임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전직, 현직국가지도자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단체들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은 세네갈최고훈장인 민족대십자훈장을, 로씨야련방정부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5돐기념메달을, 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는 로동계최고상을 수여해드리였다.

온 한해동안 전세계가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으로 끓어번지였다.

이러한 격동적인 화폭이 펼쳐지는 속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로작소개선전과 연구보급활동이 세계적판도에서 활발히 진행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영국공산당 (맑스—레닌주의),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와 베네수엘라 깐따끌라라출판사,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도이췰란드 베를린 아차위출판사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정당, 단체들과 출판기관들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등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발행식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네팔신문 《저너 써따》, 방글라데슈신문 《블리쯔》, 캄보쟈의 에프엠 90.5방송,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 등 여러 나라 신문, 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시고 그이의 로작들을 전문 또는 요지로 편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인디아신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 이딸리아잡지 《라 보체》를 비롯한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은 《정열에 넘치시는 령도자》, 《사상리론가이신 김정일동지》,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등 제목의 글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리론을 해설선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토론회, 해설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진행되였다.

온 세계가 위대한 주체사상과 탁월한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을 튼튼한 사회주의보루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반제자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의 정의의 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은 비범한 관찰력과 통찰력, 분석력과 판단력, 선견지명있고 담대하면서도 여유작작한 정치적수완, 신묘하고 령활무쌍한 령도예술을 지닌분이시라고, 캄보쟈신문 《인민》은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는 뛰여난 담력을 지니신 령장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세상사람들은 만민의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는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는데 있다, 조선의 위력은 곧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올해에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더욱 절감하는 충격적인 사변들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과 뜨거운 상봉을 하시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동북아시아정세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시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두차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통하여 자주의 기치밑에 단결과 협조를 지향하는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의 산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정녕 정력적인 대외활동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의 나날은 그이의 특출한 위인적자질과 품격이 세계에 과시된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중국방문은 국제정치, 외교사에 특기할 중대한 사변으로서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국제사회계가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으로 들끓었다.

온 지구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을 특종소식으로 광범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해방군보》, 《광명일보》, 《베이징일보》, 《해방일보》, 《신화매일전신》, 《중국청년보》, 《과학기술일보》, 《경화시보》, 중앙TV방송 그리고 《신민망》을 비롯한 인터네트홈페지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호금도동지와 상봉하시는 사진, 장면 등을 지면과 화면에 모시고 특집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신문 《뉴욕 타임스》, CNN방송, VOA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오스트랄리아 ABC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꾜신붕》, NHK방송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우리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에 대한 전파가 행성을 뒤덮었다.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정치학자들과 평론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을 세계구도를 변화시키는 정치적사변으로 평하였다. 세상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의 력사적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장군님을 세계정치와 국제관계발전을 주도해나가시는 현시대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메히꼬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은 력사적사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중국의 당과 정부, 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한것은 세계정치원로이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의 뚜렷한 표시이다, 세계의 정계, 사회계가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소식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며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세상에는 제노라 하는 정치가들도 있고 국가지도자들도 많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력사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외국방문으로 세계를 무한히 격동시키고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은 그런 위인은 없다.

올해에 진행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대외활동은 국제사회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세계정치, 외교력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였다.

참으로 이해에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 탁월한 혁명활동에 의하여 력사의 전진운동이 활발해지고 시대의 발전이 다그쳐졌으며 이에 따라 절세의 위인을 한없이 흠모하며 칭송하는 김정일열풍이 온 행성에 뜨겁게 휘몰아쳤다. 이 감동적인 시대의 흐름은 력사의 전진운동과 더불어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리학남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국 《환구시보》의 글

중국의 《환구시보》 12월 8일부가 평양시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국립연극극장과 예술인들의 살림집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살림집에 갓 입사한 예술인들의 가정을 친히 방문하시는 사진을 모시였다.

신문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데 대한 전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 모든 전선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조선정부에서는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면서 인민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도 평양에 10만세대 살림집과 인민들의 문화오락장소들을 건설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계속하여 평양시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의 국립연극극장은 민족적형식과 현대적건축형식이 잘 결합된 건물로서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속에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건설되였다고 하면서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극장의 외부와 최신식설비들로 꾸려진 극장의 내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또한 대동강반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예술인들의 고층살림집과 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쓰면서 선군시대 사상전선의 기수라는 높은 치하를 받은 조선예술인들은 앞으로 훌륭한 공연활동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은정과 기대에 보답하며 인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

모리따니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가 11월 27일 독립절에 즈음하여 한 방송연설에서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조국은 민족해방투쟁에 목숨바친 항쟁영웅들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독립후 지금까지 인민들이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현대적인 국가건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투쟁해온데 대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농업과 광업, 수산업, 전력공업을 발전시키고 물관리계획을 실현하는데 힘을 넣으며 군사력을 강화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지역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랍나라들사이의 단결을 호소

레바논수상 싸아드 하리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아랍나라들이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여 단결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는 지금까지 아랍나라들을 위협하는 유태복고주의정권을 반대하여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그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아랍나라들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굳게 뭉쳐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카나다에서 2010—2011회계년도의 첫 6개월동안에 예산적자가 174억 Can$ (카나다딸라)에 달하였다.

한편 카나다에서 올해 10월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인상되였다. 특히 에네르기가격이 9.1% 뛰여올랐다.

◎일본중앙은행은 11월 26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은행에서 1604억¥어치의 리윤손실이 초래되여 1998년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자동차생산업체들인 도요다회사와 닛산회사에서는 올해 10월에 자동차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2.4%, 12% 감소되였다.

◎미국에서 인종주의적범죄행위가 성행하여 심각한 사회적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최근 미련방수사국은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감행된 그러한 범죄가 공식 등록된것만도 604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로 인한 피해자수는 836명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

이딸리아근로자들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오늘의 세계

당의 강화와 사회적안정을 위한 노력

중국에서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사회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는 올해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4만여명에 달하는 부, 위원회와 지방의 해당 간부들에 대한 모택동주석의 혁명활동시기와 홍군시기의 전통학습을 간부재교육과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교육을 받는 간부들은 중국공산당력사과목외에 홍군복을 입고 험한 산길을 걷는 등의 체험을 하게 된다.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조치는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지방기관은 물론 중앙기관들에서 정책작성과 집행의 중견력량으로 되고있는 현실에 부합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기층당건설혁신연단 및 훌륭한 기층당건설혁신단위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였다.

시상식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조직부장 리원조는 당 제1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17기 제4차전원회의의 요구에 따라 기층당건설사업에서 개혁과 혁신을 적극 추동하고 실천속에서 방도를 찾으며 혁신적인 성과를 기층에 도입하여 활력을 부어줌으로써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시상식에서는 기층당조직과 당원들이 기층당건설사업의 주체이므로 각급 당위원회와 조직부문이 모든 력량을 기층에 집중시키고 지도간부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에게서 배우고 단련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중국에서 최근에 진행된 전군당 및 군력사사업회의에서는 오랜 기간 군대의 당 및 군력사사업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일군들과 군대의 당 및 군력사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한 중앙의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가 표시되였다.

회의에서 연설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서재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각급 단위들이 새로운 정세하에서 군대의 당 및 군력사사업을 잘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집행하며 이 사업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방 및 군건설에 보다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에서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건전한 사회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지난 1일 법 및 고소와 관련한 미해결신소사건정리 및 조사사업을 깊이있게 추진시킬데 관한 중앙정법위원회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인 왕락천은 각급 정법기관들과 광범한 정법일군들이 당중앙위원회 제17기 제5차전원회의정신과 신소사업과 관련한 전국경험교류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집행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군중과의 사업을 법 및 고소와 관련한 미해결신소사건정리 및 조사사업의 매 고리에 관통시키며 신소를 제기한 군중의 요구를 해결해주는것을 기본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군중에게 만족을 주는것을 목표로 하여 이 사업이 심화발전되도록 끊임없이 추동함으로써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에 경제 및 사회의 훌륭하고도 빠른 발전을 담보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에서는 교육의 공정성을 추진시키고 전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중하며 교육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마련하여 능력있는 교육자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국가적관심속에 추진되고있다. 우수한 교육자들을 키워내고 그들의 지위를 더욱 높이며 그들에 대한 우대를 잘해주고 교육사업의 선진적인 경험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적극 추진되고있는 당을 강화하고 사회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은 중국특색의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외교문건공개로 곤경에 처한 미국

《위킬릭스》가 지난 3년간 미국무성이 각국에 주재하고있는 자국대사관 성원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외교문서들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을 또다시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위킬릭스》는 스웨리예에 인터네트봉사기를 두고있으면서 세계적인 비밀을 폭로해온 웹싸이트이다.

이번에 《위킬릭스》가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일부 언론들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한 미국의 외교문서들에는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여있다. 이로 하여 미국이 난처해하고있다. 미국무장관 힐러리가 《위킬릭스》의 《비법적인 기밀문서공개를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미국의 대외정책적리익에 대한 침해로 된다.》느니, 《국제공동체와 동맹국 및 동반자들사이에 진행된 세계의 〈안전담보와 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상들을 공격한것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고 기염을 토한것은 그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

얼핏 보면 《위킬릭스》의 미국기밀외교문서공개가 옳지 않은것으로 여겨질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야 할것은 죄지은 자의 고함소리가 더 크다는것이다. 미국이 그에 대해 노발대발하며 목청을 돋구는것은 지은 죄가 크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이 《위킬릭스》가 저들의 외교문서를 공개하기에 앞서 재빨리 동맹국들에 그에 대해 통지한것도 외교문서공개의 영향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위킬릭스》가 공개한 외교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그에 대해 미국이 크게 우려하는 까닭을 알수 있다.

《위킬릭스》가 이번에 공개한 미국의 외교문서들가운데는 미국이 뛰르끼예정부를 반대하는 쿠르드로동당을 지원해왔다는것을 보여주는 문서도 들어있다. 거기에는 또한 미국이 여러 나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조사한 수천건의 자료들과 동맹국들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에 대한 몰상식하고 무례한 인신공격적인 내용까지 들어있다.

그뿐이 아니다. 《위킬릭스》가 공개한 외교문서들을 통해 미국이 유엔에서 비법적인 정보수집놀음을 벌린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에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무장관이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의 고위급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할데 대해 지령하였다고 한다. 유엔에 주재하고있는 중국, 로씨야, 영국, 프랑스대사들도 거기에 포함되여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비밀번호와 암호열쇠 등 통신정보와 신용카드, 략력은 물론 DNA (데혁산)와 지문을 비롯한 인체정보들까지 정보수집대상으로 되였다.

랭전시기 미국이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구실을 만들기 위해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한 사실, 음모적인 방법으로 칠레의 진보적인 알옌데정부를 전복한 사실이 후날 기밀해제된 미국정부문서들을 통해 드러난바 있다. 이번에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써 미국이야말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행위를 서슴지 않는 나라이라는것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최근 유엔사무총장은 미집권계층이 유엔의 고위급인물들에 대한 개인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것과 관련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유엔의 특권을 존중하고 보호할데 대한 《현존협약들과 조약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루를 박았다.

볼리비아부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정부가 《제국의 론리에 기초한 간섭주의적이며 철면피한 정부》라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볼리비아의 한 고위인물은 미국대사관들을 《감시, 통제, 간첩활동을 위한 기구》로 묘사하면서 자국주재 이전 미국대사가 미중앙정보국 요원이였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브라질사회주의자당 지도자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미국이 여전히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저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식민지로 대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위킬릭스》를 통한 외교문서루출이 다른 나라들의 대내외정책을 혼란시키려는 미국의 각본에 따른것이라는 여론도 나돌고있다.

관측통들은 미국의 외교문서들이 서방정보기관, 특히 미정보기관과의 협력이 없이는 공개될수 없다는데 대해 류의하면서 그 내용에 미국과 서방이 감행한 죄행들이 들어있는것을 문건들의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한 미국의 계획적인 조작의 산물로 평하고있다. 그들은 기밀외교문서공개목적이 나라들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기 위한데 있다고 하면서 이란의 핵계획과 관련하여 한 미국무장관의 발언이 그 주되는 론거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사태앞에서 미국이 바빠맞아 말이 아니다. 미행정부가 긴급히 기밀정보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각 정부기관들에 지시하는 등 미국에서 복닥소동이 벌어지고있다. 미국방성은 기밀문서의 추가루출을 막기 위해 기밀콤퓨터체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보공유절차를 대폭 변경시키였다. 미국무성은 외교전문자료기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이번 외교문서루출사건을 계기로 명백해진 체계의 결점들을 보충한다고 소동을 피우고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외교관들의 처지가 더욱 난감하게 되였다.

미국의 한 고위외교관은 자기들이 당분간 거의나 아무 일도 못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이 《최악으로 된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누구도 미국외교관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데 2년, 최고 5년이 걸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위킬릭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문서들에 언급된 여러 나라 주요인사들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련이어 발표하고있어 형세는 미국에 더욱 불리해지고있다.

지금 미국이 국제적으로 《테로를 좌절》시키며 《대량파괴무기의 전파를 막》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외정책을 계속 추진할것이라느니, 세계의 모든 나라와 지역들에서 동반자들과 협력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구차스러운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안깐힘을 쓰지만 그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성원들앞에서는 추파를 던지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못된짓만 일삼는 미국의 량면주의적정체가 더욱 드러났다고 하면서 미국에 각성없이 속을 주다가는 단단히 랑패를 볼수 있다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사기자 조택범

ㄱ-01227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